

유적지 순례 103

23世 承旨公 錫忠의 後孫들

월곡공(月谷公) 용하(龍河)

공은 승지공 석충(錫忠)의 10대손이고 장곡공 태일(泰一)의 8대손으로 고조는 증가선대부 동지중추 익갑(益甲)이고 증조도 동지중추 만중(萬中) 부 휘 도협(道澈)은 용양위부호군으로서 현종 13년(1847년) 출생하였다.

1871년 기러자(騎驢子) 송상도(宋相翬)는 1919년 유림의 파리장서(巴里長書)운동으로 유명한 봉화출신의 독립운동가 청산(淸山) 권상익(權相翊; 북야공파 33世)에게 배우고 교류하면서 견문을 넓혔다. 아호를 기러자라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애국자의 자료를 수집하여 기러수필을 편찬하였다. 이 수필은 항일투쟁을 알리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병인양요, 6.10만세운동, 1929 광주학생운동에 이르기까지 사건과 단체 및 239명의 항일투쟁사가 실려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하였다. 이 기러수필은 청산 권상익(權相翊)이 서문을 썼는데 이 수필에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의 소식을 듣고 향리에서 홀로 자진(自盡)한 월곡공(月谷公) 권용하(權龍河) 열사의 사적이 실려 있다.

공은 어려서부터 남다른데 있어 농사짓고 이웃과 화목하면서 향당에서 쌓은 학식과 덕망이 조정에 계달되어 고종 39년 47세로 종4품 선략장군(宣略將軍)의 무산계로서 사헌부 감찰(監察)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공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농사하고 있는 중 종제 용혁(龍赫)이 와서 나라가 합병되었음을 알렸다.

공은 나라가 망했는데 살아 무엇하랴 하면서 통곡하더니 의관을 정제하고 서울을 향해 북향 4배를 마치고 그대로 기둥에 머리를 받아 피를 토하며 기도하다가 막히더니 숨을 거두었다. 기러수필에는 “이 무슨 일인가 나라는 이미 폐허가 되고 사직은 가옥으로 변했으니 이것이 어찌 신자가 보고서 숨을 쉬고 있을 때인가.(是豈臣子 視息之時乎) 곧바로 머리로 벽과 기둥을 받더니 피를 토하며 절명하였다. 오호라 장하도다, 사람으로 하여금 흥감케 한 것이 과연 이로써였다.(使人興感 果以此也)”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무과(武科)한 영규(寧圭)이고 차남은 영선(寧善), 3남은 영국(寧國) 4남은 영호(寧浩)이다.

공에 관한 사적은 기러수필 이외 예천군지와 안동향교지, 의성군지, 총의월지, 안동판 독립사에 실리고 독립유공자 훈록 제12권에도 실렸으며 비문은 한국금석문집 제15권에 수록되어 있다.

시산 유동준은 공의 전(傳)을 짓고 찬하기를 “회곡공의 9대손이요 대한의 빼어난 백성인데 어찌 하늘의 해가 한가운데서 비침을 모른다 하라” 하였고 풍산 유시봉은 비문을 짓고 명하기를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니 하늘에서 받은 천성이요 나라가 망하니 몸도 없애짐은 공의 절개인데 우주를 일관하여 떠받들었으니 굳세고 또한 장렬하였네, 봉분과 사당은 눈물을 흘릴 고개에 있는데 무릇 저들 도적질해 사는 자 누구라 얼굴이 부끄럽지 않겠는가”하였다.

공의 생거지는 의성군 안사면 월소리이고 묘소는 의성 다인면 송호리 당현에 있다.

34世 대영(大永)

춘계(春桂)의 10대손이며 장곡공 태일(泰一)의 아우 태정(泰精)의 9대손이다. 통정대부 면(冕)의 장 증손이고 경산정(耕山亭) 용보(龍普)의 아들이다.

철종 7년 출생하여 성품이 순근(淳謹)하고 의표(儀表)가 단결(端潔)하며 일생을 공부에만 치중하여 배우러 오는 자들이 개도(開導)하였다. 공은 처음에 서산 김흥락(金興洛)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나중에 용산 이만인(李晩寅) 문하에서 교류하면서 문집을 남겼다. 1933년에 졸하니 78세였다. 묘소는 안동시 예안면 태곡 수암의 비룡동에 있다.

애국지사 34세 나남공(泥南公) 영탁(寧鐸)

공은 춘부(春茂)의 10대손으로 고조는 가선 수중(壽中)이고 증조는 후(愾), 조부는 도무(道武), 고의 휘는 용필(龍必)이다. 고종 26년 안동 와룡 태리 272번지에서 태어나 총명하고 성품이

당당하였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로 방방곡곡에서 3.1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공은 뜻을 같이하는 김원진, 송기식 권이원, 권집필 권경영 등과 1919년 3월 18일 안동 장터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고 3월 23일 밤 3,000 여 군중이 안동시내 동서남북에서 자주독립만세를 외쳤다. 공은 동지들과 동분서주하면서 왜경에 대항하니 그 기세는 하늘을 진동하였다. 왜경은 왜인들에게 충장을 주어 200 여 편대로 무차별 사격하고 갈로 찢러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때 순국한 사람은 공과 30 여명이었는데 공의 장지는 사니산 서쪽이었다. 1남 2녀를 두었는데 오완(五完)의 나이는 7세였다. 1983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는데 재종숙 영목과 장손 종적이 공의 사적을 수집하여 경과를 비에 기록하였다.

방후손 좌윤공과 권영태(權永泰)가 비문을 지었다.

右銘曰

天降民彝 하늘이 내린 떳떳한 백성으로

惟義與仁 어짐과 더불어 의로움이요

死死呼吸 생사를 호흡하니

孰能其仁 그 누가 알리오

仁義愛國 어짐과 의로 애국하니

義以殉躬 순국으로 의를 다하도다

奠銘收藏 소장으로 명하고 드리오니

昭示無窮 밝게 깔이 없도다

35世 탄곡공(炭谷公) 오봉(五鳳)

가연공(佳淵公) 춘계(春桂)의 11대손으로 경산정(耕山亭) 용보(龍普)의 손자요 이하공(易下公) 대영(大永)의 아들이다. 공은 고종 32년에 출생하여 자질이 명석하여 가업을 이어 문학이 심우(深憂)하였으며 향내에서 명망이 높았다.

16세때 경술국치로 참의 이만도가 안동에서 자결하였는데 영양출신 유학자 박사 김도현이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1914년 유시를 남기고 영해 관어대(觀魚臺)에서 투신 분사하자 공은 크게 감명을 받고 향전배일정신이 폐부에 가득하여 1919년 기미



△월곡공 용하의 묘소, 의성 다인면 송호리 당현.



△애국지사 영탁의 묘소, 영양 청기면 기포동 포두.

독립운동이 일어남에 25세로 시위를 참도하였다. 왜경을 피해 객지를 전전하기 20여년 해방되자 고향으로 귀환하였다. 그후 영양의 청기 기포동 향리에서 서숙하며 인근의 자녀들 70여명을 모아 한학을 가르치고 예속(禮俗)을 교시하며 일생을 보냈다. 공의 항일운동사적이 입석양명(立石揚名)되었다. 1976년 82세로 졸하니 묘소는 영양 청기면 기포동 포두 앞산에 있다.

문하생들이 적적영모비(蹟蹟永慕碑)를 세웠는데 비문은 문학박사 김일렬이 지었다.

(자료제공 :권진량, 사진:권기덕, 감수 권영목 고문, 편집 죽헌 권경석)

권성욱씨가 지은 중일전쟁과 사관

중일 전쟁은 1945년 종전 이듬해부터 시작된 국공 내전과 더불어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국공 내전의 승자는 중국 공산당이었고 중국의 근현대사는 중국 공산당을 중심의 역사로 채워졌다. 그동안 중국은 중일 전쟁에서 “팔로군이 일본군의 90퍼센트를 상대했다”고 선전해왔다. 많은 학자들 또한 마오쩌둥의 ‘유격전’이 중국 현대 군사전략의 대명사인 양 극찬한 반면, 장제스는 일본과의 전쟁을 회피하고 내전에만 열중했다.

중일 전쟁의 주역은 장제스와 국민정부군이었다. 8년 1개월의 전쟁 동안 국민정부군은 일본군과 정면으로 맞붙은 주체였고 막대한 희생을 감당하였다. 국민정부군의 사상자는 공식적으로 321만 명에 달했고 두 명의 집단군 사령관을 포함해 206명의 장성급 지휘관들이 전사하였다. 국민정부군은 연합국의 대전략에서 소외되는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일본군의 수습만 병력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며 연합국의 승리에 기여했고, 최정에 부대들이 버마 원정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특히 1945년 초부터 중국군은 일본군을 대륙 동쪽으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중일 전쟁에서 항일은 중국 공산당의 주요 목표가 아니었다. 전쟁이 개시된 시점에 마오쩌둥은 공산당 고위간부들과의 비밀회의에서 “일본과의 항쟁은 우리 당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는 70퍼센트를 역량 확대에, 20퍼센트를 국민당과의 투쟁에, 10퍼센트를 일본과의 투쟁에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중일 전쟁 시기에 일본과의 결전을 회피하며 세력을 급격하게 확대했다. 나중에 마오쩌둥은 중일 전쟁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한때 30만 명에 달했던 우리 군대는 우리 스스로 저지른 실수로 불과 2만 명

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8년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군대는 120만 명으로 늘었다.”

2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8년 1개월간의 전쟁

1928년 관동군은 황구툰 사건을 일으켜 중국 동북의 지배자 장췌린을 살해한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예고편이었다. 1931년 관동군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차지하고 이어서 만리장성 이북을 점령하여 베이징으로 쇄도했다. 일본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1937년 베이징 근교에서 일어난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드디어 중일 전쟁의 막이 오른다. 화북에서 치솟은 전쟁의 불길은 곧 상하이로 번졌다. 무려 1백만 이상의 군대가 격렬한 상하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일본군에 패배하였고, 이후 1938년 말까지 일본은 중국과의 대규모 회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수도인 난징, 쑤저우, 우한, 광저우를 차례로 점령한다.

장제스는 연전연패에도 불구하고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후 전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전선은 교착 상태가 되었고, 일본군은 더 이상 획기적인 진격을 할 수 없었다. 중국 전선의 병력을 80만 명까지 늘렸지만 일본군의 공격력은 점점 무너졌다. 일본군의 앞에는 결결이 중국군의 방어선이 있었고, 후반에는 수습만의 중국군 유격대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중국은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고 중국 전선은 세계대전의 주요 전장 중 하나가 되었다. 일본군은 중국 전선에서 끝내 돌파구를 열지 못하자 중국 봉쇄와 자원 확보를 위해 남방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했다. 일본군은 끝없이 전선을 늘려갔고 점점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왜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는가?



최초 멸망 이후 중국이 여러 군벌들로 분열되자 일본은 이를 침략의 기회로 삼았다. 1920년대 후반 시점에 만주 침략은 일본의 국가적 목표가 되었다. 촉망받는 장교였던 이시와라 간지는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 간의 인류 최후의 날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만동(만주와 내몽골)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시와라 간지는 관동군 작전참모도 부임하여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 주동자 중 한 명이 된다.

제국주의의 침범, 일본군 장교 집단의 멘탈리티

일본군의 중국 침략 과정을 보면, 일선의 군대가 독단적으로 작전을 벌이고 일본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 수순으로 사건이 진행됨을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 일본 군부는 결코 국가의 수족이 아니었다. 천황은 물론 전시 최고 사령부였던 대본영과 내각은 군부를 제어할 수 없었다. 군부는 내부적으로도 결코 상명하복이 관철되는 일원화된 조직이 아니었다. 메이지 유신 이래 군부에서 파벌주의는 하나의 전통이었다. 일선의 장교들은 파벌이 다르면 하급상을 불사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급 장교들이 군사반란을 일으키거나(2.26사건), 육군사관 후보생들이 총리를 살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

(5.15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파벌주의는 일본군 장교들의 엘리트주의와 소영웅주의, 그리고 연이은 승전과 맞물려 매우 독특한 정신세계를 만들어냈다. 일본 제국의 전선을 담당 한 장교들은 누구의 명령 없이도 이미 충분히 제국주의적이었다. 일선의 지휘관들은 상부의 명령에 이랑하지 않고 마치 폭주하듯이 사건을 일으켰고, 전투를 개시했다. 그들에게 적의 객관적 전력이나 증장기 전략 같은 것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황군’은 무패의 군대로 간주되었고, ‘황군’을 후퇴시키는 명령은 격렬한 반발을 샀다. 일본 중앙정치에서 신중론자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졌고, 어느 누구도 군부를 막을 수 없었다.

왜 일본은 중국을 이기지 못했나?

일본군은 만주와 화북에서 다른 군벌들을 속전속결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장제스의 중국군을 꺾을 수는 없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갔다. 전선이 끝없이 확대되면서 일본은 병력을 계속 늘려야 했다. 일본은 전쟁 이전의 17개 사단 30만 명 규모의 병력을 1939년이 되면 41개 사단 150만 명으로 늘렸다. 그중에서 중국 전선에 배치된 병력은 25개 사단 80만 명에 달했다. 종전이 임박했을 때 지나과전군의 규모는 1백만 명 이상이였다. 일본 경제력으로는 이를 지탱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것이다.

장제스와 중국군의 경이로운 항전

오랜 내전을 겪었던 중국군은 장비도 훈련도 매우 빈약했으며 근대전에 대한 경험도 거의 없었다. 1930년대 중반에 와서 독일 군사고문단의 도움을 받아 군대의 근대화에 착수했지만, 노력이 결실을 맺기 전에 중국은 일본의 전면적인 공격에 직면하였다. 장제스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적어도 평시에는 60개, 전시에 2백 개의 근대화된 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보유한 근대화된 사단은 겨우 30개에 불

과했다.

중국군은 화력과 기동성에서 훨씬 열세했지만 손자방법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전통적인 전술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일본군을 끝없이 괴롭혔다. 장제스의 직계 부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중국군은 침략자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웠다. 중국군은 장제스의 명령에 따라 끈질기게 공격과 방어를 반복했으며 많은 부대가 문자 그대로 전멸을 감당하였다.

전쟁의 용광로에서 현대 중국이 태어나다

1945년 9월 9일 중국은 오랜 항전 끝에 마침내 승전국이 되어 일본의 항복을 받았다.

중일 전쟁을 거치며 중국은 하나의 중국으로서 통일을 경험했다. 모든 군벌의 군대가 국민혁명군의 깃발 아래 모였고 일본에 맞서 싸웠다. 경제와 정치도 통합되어 통일 중국의 밑바탕이 되었다. 전쟁은 극도의 고통과 내핍을 견뎌내며 항일을 독려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지속될 수 있었고, 전쟁을 거치며 중국 민중은 근대적인 민족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또한 중국은 이 전쟁을 통해 아편 전쟁 이래 1백여 년에 걸쳐 열강들에게 짓밟혀온 오욕의 역사에서 벗어났다. 외세에 한없이 비굴했던 청조와 북양 정권의 위정자들과 달리 장제스는 북벌 직후부터 열강과 교섭에 나서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모든 불평등 조약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절반의 승리였다. 중일 전쟁 동안 꾸준히 힘을 길러온 중국 공산당은 전쟁이 끝날 무렵에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합작의 두 주체였던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전쟁이 시작되고 국민당은 패배하고 만다. 그와 함께, 중일 전쟁의 기억은 공산당 승리의 역사로 도배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포화가 쏟아지는 전장을 직접 헤쳐 가며 전쟁의 주역, 승리의 주역을 다시 확인시켜줄 것이다.

권성욱씨 약력
울산대학교 조선공학과 졸업, 중국 근현대 전쟁사 전문 분야, 공무원으로 재직 중

壬辰倭亂과 幸州大捷 ②

安東權氏 耆老會長 權 貞 澤 忠 莊 祠 祭 奠 委 員

고니시의 부대는 가토의 군과 충주에서 일단 합류하였으나 진로를 다시 하여 고니시의 군은 여주로 나가 강을 건너 동로로 빠지고 가토의 군은 죽산 용인을 경유하여 한강 남안에 이르렀다. 제3번대와 제4번대도 청주성을 함락하고 경기도로 나와 서울로 향하였다.

왜군이 복침한다는 급보가 계속 날아왔으나 그대로 충주 탄금대 폐보를 전하기전까지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重臣들의 결의는 변함이 없었다. 또한 선조의 西遷을 주장하는 일부관료들도 대외에 널리 강력한 주장을 펴지 못한채 다만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光海君을世子로 책봉하고 百官에 명하여 軍服을 입도록 하였는데, 29일 충주패보

가 전해지자 선조가 서천에 대한 시비도 따질 사이 없이 그날 밤으로 서천을 결정하였다.

선조가 서천하기에 앞서 우의정 李陽元을 留都大將에 임명하여 도성을 수비하게 하고 喪中에 있던 金命元을 起復하여 도원수를 삼아 한강을 지키도록 하였으나 병비가 허술하여 왜적과 대적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밤이 깊어 충주에서 또 탈출한 이일에 장계가 도착하였는데, “왜적이 금명간에 반듯이 도성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다급해진 선조는 흥복으로 같이입고 서천의 발길을 옮기며 세자 광해군이 왕의 뒤를 따랐다.

왜군이 서울에 쳐들어온 것은 5월23일이었다.

이때 한강을 수비하고 있던 도원수 김명원은 한강 수비에 어려움을 깨달고 임진강으로 퇴각했으며, 따라서 이양원도 도성의 방어가 불가능을 알고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개성에 머물고 있던 선조는 도성이 왜군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평양으로 옮겨 갔으며, 임진강 방어전도 실패하여 개성이 함락되고 왜군이 계속 북침한다는 보고를 받고 평양수호를 포기한 채 다시 의주를 향하여 발길을 옮겼다.

임진강을 건너간 왜군은 3군으로 나뉘어 고니시의 부대는 평안도 방면으로 침입하여 6월에 평양을 점령하고 이곳을 본거지로 삼았으며, 함경도로 침입한 가토의 군은 본도 관찰사 柳永立을 포박하고 병사 李淸은 判民에게 피살되었으며, 본토의 勤王兵을 일으키기 위한 들어은 任海君과 順和君 등은 반민에게 포박되어 적진에 넘겨지는 등 도전체가 적의 손안에 들어갔다. 황해도로 침입한 구로다의 군은 해주를 본거지로 삼고 도내 각 고을을 침범하여 분탕질을 자행했다.

일본이 침입한지 한달여만에 호남과 평안도 일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의주에 머물고 있던 선조는 큰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6월 이후 8도 전역에서 義兵과 義衆軍이 蜂起하여 무력한 관군을 대신하여 왜군을 격파했고 조선수군의 활약으로 제해권을 장악하여 일본수군의 황해진출을 차단함으로써 전세를 반회할 수 있는 길이 트이기 시작했으며 이해 12월에 명나라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다음해 우리관군 義仲軍과 합세하여 평양성을 수복하게 되어 전세가 逆轉하게 되었다.

2. 幸州大捷과 權慄

周知하는 바와 같이 幸州大捷은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주도한 싸움으로 壬辰倭亂大捷의 하나로 꼽힌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歷史가 人物을 만드는 것이냐, 人物이 歷史를 만드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때가 가끔 있다. 이럴 때

마다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적이 많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역사가 인물을 만들 수도 있고, 인물이 역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權慄은 어느 쪽에 해당될까. 아마도 權慄에 있어서는 인물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그의 행적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권율은 45세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늦게 벼슬에 진출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에 제수되고 바로 임지로 떠났다. 왜병에 의해 서울이 함락된 뒤 전라도순찰사 李洸과 방어사 郭際이 4만 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광주목사로서 郭際의 휘하로서 中衛將이 되어 서울의 수복을 위해 함께 북진하였다.

이광이 수원과 용인 경내의 이르러 이곳에 진을 친 소규모의 왜적을 공격하려 하자 극력 반대하면서 자중 자책을 말하였으나 이광이 이를 듣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하여 대패하였다.

(다음호에 계속)